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11.40원 상승한 1,228.70원에 마감
------	----------------------------------

16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19발 경기지표 악화를 반영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40원 상승한 1,228.7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24.9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직후 환율은 미국의 소매매출 감소(전 월대비 -8.7%)를 반영하며 큰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230원에서 당국경계에 상단이 제한되었으며, 이후 증시변동에 따라 1,220원 후반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한 후 1,228.7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27.5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39.90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24.90	1229.10	1224.90	1228.70	1227.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35.25	1146.41	1134.77	1142.10	
금일 전망	美 경제활동 재개 희망 속 치료제 소식... 1,220원 초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시카고대학에서 개발중인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임상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을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28.70원) 대비 0.20원 상승한 1,227.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제재개를 3단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주의 주지사가 필요에 따라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편,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로인해 미국의 선물지수가 3%가까이 상승했다. 이상의 치료제 임상효과는 경제재개와 함께 환율에 하락압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당지급에 따른 외국인 역송금 증가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11시경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일 달러/원	1222.00 ~ 1230.50 원
---------	---------------------

예상 범위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687.48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20원 ↑
	■ 美 다우지수 : 23537.68, +33.33p(+0.1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4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1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